

豨薺에 관한 文獻的 考察

趙賢模 · 徐榮培 · 成樂箕*

I. 序 論

豨薺은 菊花科(Compositae)에 속한 一年生 草本인 진득찰(*Siegesbeckia glabrescens* Makino)과 同屬 近緣植物의 全草로 여름으로 꽃이 피기 전에 採取하여 晒乾한 것이다.²⁷⁾

豨薺이 記載된 最初의 本草書는 《新修本草》²⁾로 “豨薺, 味苦, 寒, 有小毒. 主熱濕煩滿, 不能食. 生搗汁, 服三, 四合, 多則令人吐. 葉似酸漿而挾長, 花黃白色, 一名火薺, 田野皆識之. 新附.”라고 記載되었으며 希仙, 豨薺, 火薺, 豬膏草, 粘糊菜, 虎薺, 火杖草, 狗膏 等の 異名⁵⁾이 있다.

‘豨’라는 것은 큰돼지를 말하는 것이고, ‘薺’이라는 것은 그 풀의 성질이 辛毒한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本草綱目》⁵⁾에서는 “此草臭如猪而味薺螫. 故謂之豨薺.”이라 하여 豨薺의 냄새가 돼지의 냄새가 나서 ‘豨’라는 말을 한 것이고, 그 性質이 辛毒하여서 險하다는 ‘薺’을 사용하여 ‘豨薺’이라고 이름하였다고 하였다.

豨薺으로 사용되는 진득찰속植物에는 진득찰(*Siegesbeckia glabrescens*), 제주진득찰(*Siegesbeckia orientalis* L.), 털진득찰(*Siegesbeckia pubescens*)등이 있는데 줄기와 잎의 털의 有無, 꽃자루의 腺의 有無 등에 의하여 구분되는데³⁰⁾, 털진득찰(*Siegesbeckia pubescens* Makino와 *Siegesbeckia orientalis* L.)은 주로 大邱地方에서 花序를 사용하고 있다.²⁹⁾ 그런데 李時珍은《本草綱目》⁵⁾에서 豨薺의 起源에 대하여 豬膏母는 ‘葉似蒼耳’하므로 豨薺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後代에 混同되어 사용되어 왔다고 지적하면서, 豨薺항에서 附藥材로 豬膏母를 기록하고 있다.

豨薺의 效能과 主治는《新修本草》²⁾에 “主熱濕, 煩滿, 不能食”이라 記載된 이래 기타의 諸 本草書²⁻²⁷⁾에 의하면 祛風濕, 補虛, 安五藏, 生毛髮, 明眼目, 烏髭髮, 壯筋力의 效能으로 肝腎風氣, 四肢麻痺,

痺, 骨間疼, 腰膝無力, 行大腸氣, 風濕瘡, 肌肉頑癩, 婦人久冷, 中風失音不語, 口眼喎斜, 時吐涎沫 등의 症狀治療에 사용되고 있다. 近來의 많은 文獻에서는 豨薺을 祛風濕藥으로 分類하고 있는데, 이상의 效能과 主治를 보면 豨薺이 補益藥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게 된다.

豨薺의 修治法은 처음에는 별다른 修治없이 生搗汁하여 사용하다가 九蒸晒乾하여 丸으로 服用하는 것이었으나, 近來에는 단지 晒乾만을 거친 상태에서 특별한 修治法이 사용되지 않고 煎湯을 하고 있다.

豨薺에 관한 實驗的 研究로는 朴²⁸⁾과 金 等²⁹⁾이 각기 高血壓과 高脂血症에 대하여 발표한 외에는 實驗的 研究가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이상과 같이 豨薺의 起源, 修治 및 效能 主治 등이 매우 混同되어 있어 文獻的 考察을 통하여 이들을 명확히 밝히어 實驗研究의 基礎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本 論

1. 연구방법

본 論文에 이용된 자료는 韓國과 中國에서 간행된 本草書 중 豨薺이 기재되어 있는 本草書 26種을 선택하여 豨薺이 記載된 部分 中에서 豨薺의 性狀 및 起原, 氣味와 歸經, 主治와 效能, 修治에 따른 效能의 變化 等を 조사하였는데 引用書의 나열순서는 시대별로 다음과 같다.《표1》

《표1》引用된 書籍

冊 名	著 者	年 代
新修本草	蘇敬	唐顯慶 2年
千金翼方	孫思邈	宋
證類備用本草	唐慎微	宋
本草綱目	李時珍	明
本草蒙筌	陳嘉謨	明
醫學入門	李梴	明
東醫寶鑑	許浚	朝鮮 光海君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本草學教室

冊名	著者	年代
本草品彙精要	劉文泰	明
得配本草	嚴西亭外	清
本草易讀	汪詡庵	清
神農本草經疏	繆希雍	清
本草備要	汪詡庵	清
中醫要藥分類	沈金鰲	清
本草從新	吳儀洛	清
本草述鈞元	楊時泰	清
本經逢源	張璐	清
中藥志	中國科學院	1961年
滇南本草	樂茂	1977年
中草藥學	上海中醫學院	1975年
中藥臨床應用	中山醫學院	1975年
申氏本草學	申佶求	1987年
草木便方	謝先	1988年
本草學	永林社	1991年
中藥學	顏正華	1991年
中藥大辭典	新文豐出版公司	1982年
中華藥海	上海中醫學院	1993年

豨薺는 《神農本草經》에는記載되지 아니하고 《新修本草》²⁾에서 처음으로記載되었다. 《本草品彙精要》³⁾에서別錄云 “治中風失音不語, 口眼喎斜, 時吐涎沫.”, 別錄云 “明眼目, 烏髭髮, 壯筋力.”이라고 하여 마치 隋唐時代의 陶弘景이 저술한 《名醫別錄》⁴⁾에서引用한 것으로 되어 있어 陶弘景의 《名醫別錄》⁵⁾이豨薺를記述한 最初의 文獻인 것으로誤解의 소지가 있으나, 《名醫別錄》⁶⁾에서는豨薺과類似하게 생겼다고 《本草綱目》⁷⁾에서 말한 ‘類鼻’에 대하여 “類鼻 味酸, 溫, 無毒. 主痿痺. 生田中高地, 葉如天名精, 葉根五月采.”라고說明하고 있을 뿐이고豨薺에 대한敍述은 없다.

또한 《新修本草》²⁾에 “豨薺, 味苦, 寒, 有小毒. 主熱癰煩滿, 不能食. 生搗汁, 服三, 四合, 多則令人吐. 葉似酸漿而狹長, 花黃白色, 一名火薺, 田野皆識之. 新附.”⁸⁾라고 되어 있어 《新修本草》²⁾에서 처음으로記載된 것으로 나타난다.

2. 각 本草書에記載된 性狀 및 起源의 비교

각 本草書에記載된 내용을 살펴보면豨薺과猪膏母를區別하여敍述한 書籍은 文獻의으로 《證類備用本草》⁴⁾에서까지이고 後代에서는猪膏母

와豨薺를區別하여서記述을 하지 못하고混同을 하였기 때문에 이에豨薺의 性狀 및 起源에 대하여 원래 《新修本草》²⁾, 《證類備用本草》⁴⁾에서敍述한 내용을比較하면서 後代의 敍述이 어떻게 변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표2>

<표2> 新修本草, 證類備用本草에서의 비교

	豨薺	猪膏母
新修本草	葉似酸漿而狹長, 花黃白色,	葉似蒼耳, 莖圓有毛,
證類備用本草	唐本注云: 葉似酸漿而狹長, 花黃白色 目禹錫等謹按蜀本 圖經云: 高二尺許, 子青黃, 圖經曰: 春生苗葉, 似芥菜而狹長, 文選. 莖高二三尺, 秋初有花如菊. 秋末結實頗似鶴虱. 夏採葉, 暴乾用. 成訥云: 高三尺許, 節葉相對 張詠云: 其草頗有異, 金稜銀線, 素根紫莖, 對節而生. 蜀号火杖, 莖葉頗同蒼耳	唐本注云: 葉似蒼耳, 莖圓有毛. 臣禹錫等動按蜀本 圖經云: 葉似蒼耳, 兩枝相對, 莖葉俱有毛, 黃白色. 陳藏器云: 似荏葉有毛.

이처럼 처음에 《新修本草》²⁾에서豨薺과猪膏母를說明을 할 때에는 단지豨薺를 ‘葉似酸漿而狹長, 花黃白色’이라고表現을 하였고, 猪膏母는 ‘葉似蒼耳, 莖圓有毛’라고 하여豨薺과猪膏母의差異가 단지 털의 有無만으로區別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바로 다음 代인 《證類備用本草》⁴⁾에서引用한 것에서는 비록 《證類備用本草》⁴⁾가豨薺과猪膏母를 달리表現을 하고 있었지만豨薺의引用에서張詠云: “其草頗有異, 金稜銀線, 素根紫莖, 對節而生. 蜀号火杖, 莖葉頗同蒼耳.”을引用한 것으로 인하여 여기에서부터火杖을比較引用을 하면서猪膏母와 약간混同을 하기始作을 하였으니 바로 ‘莖葉이 頗同蒼耳.’라고 한 것에서 부터이다.

때문에 以後의 書籍들이豨薺과猪膏母를混同하여使用을 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弊端이 많았기 때문에 《本草綱目》⁵⁾에서 비로서 이러한弊端을 바로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어찌된 理由에서 인지는明確히 알수가 없으나 後世의 本草書에서 이와 같은李時珍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시금混用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注目할 만하다.

《本草綱目》⁵⁾에서 다시금豨薺과猪膏母를分

〈표3〉 明清代의 比較

冊名	豨薟	猪膏母(豨薟의 錯誤)
本草綱目	[恭曰] 葉似酸漿而狹長, 花黃白色. [頌曰] 似芥葉而狹長. 文粗莖高二三尺. 秋初有花如菊. 結實頗似鶴虱. [時珍曰] 豨薟似酸漿. 高三尺許. 節葉相對. 張詠豨薟丸表: 金縷銀線. 素莖紫莖. 對節而生. 蜀號火杵. 莖葉頗同蒼耳. 猪膏草素莖有直稜. 兼有斑點. 葉似蒼耳而微長. 似地菘而稍薄. 對節而生. 莖葉皆有細毛. 肥壤一株分枝數十. 八九月開小花. 深黃色. 中有長子. 如同蒿子. 外萼有細刺粘人.	[敬曰] 葉似蒼耳. 莖圓有毛. [時珍曰] 猪膏母似蒼耳. [藏器曰] 猪膏草葉似荏有毛. [保昇曰] 猪膏葉似蒼耳. 兩枝相對. 莖葉俱有毛. 黃白色.
本草品彙精要	圖經曰 春生苗葉, 似芥葉而狹長, 文纒莖, 高二三尺, 秋初有花如菊, 秋末結實頗似鶴虱.	
神農本草經疏	其藥多生沃壤, 高三尺許, 節葉對其葉. 此草金陵銀線素莖紫莖, 對節而生, 莖葉頗同蒼耳.	莖葉頗同蒼耳. 與吳地所產者有異
本草備要	其草金陵銀, 鎖素莖紫莖, 對節而生, 頗同蒼耳	頗同蒼耳
本草易讀	節葉相對, 頗同蒼耳.	節葉相對, 頗同蒼耳.
本草述勾元		又名火杵草. 即猪膏母也. 所在有之. 今河南陳州. 采充方物. 此草素莖有稍而不圓. 兼有斑點. 高三尺許. 葉對節生. 似蒼耳而微長. 又似地菘而稍薄. 莖葉皆有細毛. 八九月皆小花. 深黃色. 中有長子如同蒿.

〈표4〉 近代의 分類에서의 비교

	豨薟	猪膏母(豨薟의 錯誤)
草木 便方	菊科豨薟草屬植物豨薟草 <i>Siegesbekia orientalis</i> L.的全草	
中藥 學	菊花一年生草本植物豨薟 <i>Siegesbekia orientalis</i> L.的地上部分.	腺梗豨薟 <i>S. pubescens</i> Mak. 或毛梗豨薟 <i>S. glabrescens</i> Mak.
中草 藥學	菊科植物腺梗豨薟的莖葉. 植物形態 一年生草本. 莖直立, 上部多分枝, 常帶紫色, 有白色長柔毛. 單葉對生, 葉片廣卵形, 或萎狀卵形, 邊緣有不整齊的鋸齒, 基部兩側沿葉柄下延成翼狀, 兩面密生長柔毛, 葉脈近基部三出, 葉柄有莖下部至上部漸短, 近花序的葉全無柄. 頭狀花序多數, 集成頂生的圓錐花序, 花黃色. 瘦果四稜狀倒卵形, 稍彎曲, 黑色.	
中華 藥解	1. 腺梗豨薟 一年生草本, 高50-120厘米, 莖直立, 常帶紫色. 地上部密被灰白色長柔毛和紫褐色腺毛, 葉對生, 有柄, 闊卵形或卵狀三角形, 長9-14厘米, 寬4-9厘米, 基部楔形, 下延成翼柄, 葉緣有不規則的鋸齒, 兩面均有長柔毛; 通常上部葉逐漸變小, 成長橢圓狀披針形. 頭狀花序頂生或腋生, 排列成圓錐狀; 總花梗密被長柔毛和腺毛, 分泌粘液, 總苞片2層, 外層苞片5枚, 錢狀匙形, 內層苞片10-12枚, 倒卵形兜狀, 內外層苞片皆有腺毛. 花雜性, 黃色, 邊緣爲舌狀花, 雌性, 先端3淺裂; 柱頭2裂; 中央爲管狀花, 兩性; 先端5裂; 雄蕊5, 子房下位, 柱頭2裂. 瘦果倒卵形, 有四稜, 微穹; 黑色, 平冠毛. 花期8-10月, 果期9-12月. 生于山坡或路邊, 分布于東北, 華北, 華東, 華南, 西南等地.	2. 豨薟 與上種類似, 高50厘米左右, 其主要區別是植株比較小, 花梗和枝上部密披短柔毛, 葉片闊卵狀三角形至披針形, 邊緣有不規則的淺裂或粗齒. 春夏開花, 頭狀花序下的總苞片條狀匙形, 總梗不分枝, 集成頂生總狀花序, 頂端一枝梗最短, 舌狀花稍短, 長至2.5毫米, 瘦果稍膨脹而彎曲. 生長于山坡, 路邊較常見. 分布于我國南部地區. 3. 毛梗豨薟 又名小毛豨薟. 一年生草本, 高35-100厘米, 外形與上種相似, 但花梗和枝上部疏生平狀灰白色柔毛, 上葉片較小, 下葉片較大. 瘦果倒卵形, 具四稜, 上部較寬, 下部較窄, 微穹, 黑色, 平滑無毛. 花期8-10月, 果期10-11月. 生長于山坡路傍雜草, 長江以南及西南等地多見.

	豨薟	猪青母(豨薟의 錯誤)
申氏本草學	Siegesbeckia glabrescens Makino	털진득찰(Siegesbeckiae pubescens Makino 와 Siegesbeckia orientalis L.)
中藥大辭典	<p>① 腺梗豨薟 Siegesbeckia orientalis L. var. pubescens Mak.</p> <p>一年生草本, 高50-100厘米, 莖直立, 常帶紫色. 地上部密被灰白色長柔毛和紫褐色腺毛, 葉對生, 有柄, 闊卵形或卵狀三角形, 長9-14厘米, 寬4-9厘米, 基部楔形, 下延成翼柄, 先端尖, 葉緣有不規則的鋸齒, 兩面均有長柔毛; 通常上部葉逐漸變小, 成長橢圓狀披針形. 頭狀花序頂生或腋生, 排列成圓錐狀; 總花梗密被長柔毛和腺毛, 分泌粘液, 總苞片2層, 外層苞片5枚, 錢狀匙形, 內層苞片10-12枚, 倒卵形兜狀, 內外層苞片皆有腺毛. 花雜性, 黃色, 邊緣爲舌狀花, 雌性, 先端3淺裂; 柱頭2裂; 中央爲管狀花, 兩性, 先端5裂; 雄蕊5, 子房下位, 柱頭2裂. 瘦果倒卵形, 有四棱, 微穹; 黑色, 平冠毛. 花期8-10月, 果期9-12月.</p> <p>生於山坡或路邊, 分布於東北, 華北, 華東, 華南, 西南.</p>	<p>② 豨薟 Siegesbeckia orientalis L.</p> <p>與上種類似, 高50厘米左右, 其主要區別是植株比較小, 花梗和枝上部密披短柔毛, 葉片闊卵狀三角形至披針形, 邊緣有不規則的淺裂或粗齒. 春夏開花, 頭狀花序下的總苞片條狀匙形, 總梗不分枝, 集成頂生總狀花序, 頂端一枝梗最短, 舌狀花稍短, 長至2.5毫米, 瘦果稍膨脹而彎曲. 生長於山坡, 路邊較常見. 分布於我國南部地區.</p> <p>③ 毛梗豨薟 Siegesbeckia orientalis L. var. glabrescens Mak., 又名小毛豨薟.</p> <p>一年生草本, 高35-100厘米, 外形與上種很相似, 但花梗和枝上部疏生平伏灰白色柔毛, 葉片及瘦果較小. 花期8-10月, 果期10-11月.</p> <p>生長於山坡路傍雜草, 長江以南及西南等地多見.</p>
本草學	菊花科(국화과; Compositae)에 속한 一年生 本草인 진득찰 Siegesbeckia glabrescens Makino과 同屬 近緣植物의 全草	

類한 뒤에 後世의 豨薟에 대한 記錄이 어떻게 변하여 왔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표에서 살펴 보았다. <표3>

이처럼 豨薟과 猪青母가 混同을 하여 오다가 近代에 이르러 分類學이 나타나게 되면서 豨薟과 猪青母를 하나로 認識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진득찰과 털진득찰에 대하여 同屬近緣植物로 同一化한 것을 말한다.

이에 近代에 있어서 豨薟의 起源을 어떻게 說明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아래의 표에 比較하였다. <표4>

이처럼 豨薟은 <新修本草>²⁾에서 豨薟의 性狀과 起源을 처음으로 記載된 이래에 <證類備用本草>⁴⁾에서까지는 豨薟과 猪青母를 區別하여 기재하였으나, 그 後代에 이르면서 豨薟과 猪青母를 混同하여 使用을 하여 오다가, 各家의 本草書에서 그 표현한 모양이 다르게 된 것을 <本草綱目>⁵⁾에서는 豨薟과 猪青母라는 藥物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區別하여 표현하였다.

豨薟의 同屬植物로는 진득찰속에 진득찰(Siegesbeckia glabrescens), 제주진득찰(Siegesbeckia

orientalis L.), 털진득찰(Siegesbeckia pubescens)로 나누는데 진득찰은 털진득찰에 비하여 줄기와 잎에 털이 없고 꽃자루에 선이 없는 것이 특징이고, 제주진득찰은 진득찰과 털진득찰에 비하여 줄기가 又狀으로 갈라지고 잎의 하부는 불규칙하게 淺裂하는 것이 특징이며, 털진득찰은 진득찰에 비하여 줄기와 잎뒤에 맥상에 백색의 긴털이 密生을 하고 잎이 大形이며 花梗에 흔히 腺毛가 있고 瘦果는 2.5~3.5mm로 보다 길다.³⁾ <fig 1,2>

이처럼 같은 진득찰이라도 그 분류에 따라서 그 모양이 다르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다시금 그 <本草綱目>⁵⁾의 後代에 이르러서는 豨薟과 猪青母를 區別하여 使用을 하지 않고 있다가 近代의 分類法이 나오면서 猪青母를 털진득찰로 이해하여 <中藥志>²⁰⁾에 이르러서는 腺梗豨薟과 毛梗豨薟으로 分類를 하게 되는 바, 腺梗豨薟이라는 것은 결국 豨薟, 즉 진득찰을 말하는 것이고 毛梗豨薟이라는 것은 猪青母 즉, 털진득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本草綱目>⁵⁾에서 豨薟과 猪青母를 區別하여야 한다고 표현한 以來로 後代에서 진득찰과 털진득



(진득찰 fig 1)



(털진득찰 fig 2)

찰이 混用이 되어서 쓰였으나 별다른 疑懼心이 없었으며 단지 각 本草書에서 氣味와 性狀을 다르게 표현한 것을 단지 産地의 地域的 差異라고 하였으나^{40,9)}, 申²⁵⁾은 産地를 달리하여 진득찰과 털진득찰을 比較하였고, 《本草綱目》³⁾에서 稀莨과 猪膏母가 다르다고 표현한 것과는 달리 申²⁵⁾은 진득찰과 털진득찰이 같이 쓰인다고 하였다.

3. 각 本草書에 記載된 性味の 比較

稀莨의 性味는 最初의 記錄文獻인 《新修本草》²⁾에서 “味苦寒 有小毒.”이라고 記載된 이래로 각 本草書에 記載된 性味에 대해서 역시 稀莨과 猪膏母를 區別하여 나뉜 《證類備用本草》⁴⁾까지를 記述하고 다른 本草書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아 보았다. 《표5》

《표5》 新修本草, 千金翼方, 證類備用本草에서의 比較

	稀莨	猪膏母
新修本草	味苦, 寒, 有小毒.	味辛, 苦, 平, 無毒.
千金翼方	味苦, 寒, 有小毒.	味辛, 苦, 平, 無毒.
證類備用本草	味苦, 寒, 有小毒. 高郵軍云 性熱, 無毒	味辛, 苦, 平, 無毒. 陳藏器云 猪膏母, 有小毒.

이처럼 《新修本草》²⁾에서는 稀莨의 氣味가 苦寒하고 小毒이 있다고 說明을 하였고, 猪膏母는 味

가 辛苦하고 氣가 平하면서 無毒하다고 說明을 하여 完연히 다른 藥物임을 說明하였고, 《千金翼方》³⁾이나 《證類備用本草》⁴⁾에서는 각기 《新修本草》²⁾의 말을 따랐으나, 《證類備用本草》⁴⁾에서 引用된 高郵軍은 稀莨의 性이 熱하고 無毒하다고 하여 《新修本草》²⁾와 다른 입장을 表現하였고, 陳藏器는 猪膏母가 毒이 있다고 하여 《新修本草》²⁾와 다르게 表現을 하였다.

다음으로는 稀莨과 猪膏母를 分類하지 않고 混同되어 사용된 古籍들을 比較하여 氣味가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표6》

《표6》 기타 本草書에서의 比較

	稀莨	猪膏母(稀莨의 錯誤)
本草綱目	苦 寒 有小毒	辛 苦 平 無毒
本草蒙筌	苦 寒 有小毒	
醫學入門	苦 寒 有小毒	
東醫寶鑑	苦 寒 有小毒	
本草品彙精要	苦 寒 有小毒	
得配本草	苦 辛 有小毒 生寒熱溫	辛
滇南本草	味苦, 性微寒, 有小毒	
神農本草經疏	苦 寒 有小毒	
本草備要	苦 辛 生寒 熱溫	辛
本草從新	苦 辛 生寒 熱溫	辛
本草述勾元	辛 苦 氣寒平	辛 平
本草逢原	辛 苦 寒 有小毒	辛

	豨薺	猪膏母(豨薺의 錯誤)
中醫要藥分類	味苦辛, 性生寒熱溫, 無毒	辛 無毒
本草易讀	苦寒 有小毒	
中藥臨床應用	苦寒 有小毒	
中藥志	苦寒	
草木便方	辛苦溫 有小毒	辛
中藥學	苦寒	
中草藥學	苦寒	
中華藥解	苦寒	
申氏本草學	苦寒	
中藥大辭典	苦寒	
本草學	苦寒 無毒	無毒

이처럼 《新修本草》²⁾에서 처음으로 豨薺을 “苦寒 有小毒”이라는 表現을 하였고 猪膏母는 “苦辛 平 無毒”이라는 表現을 하였는데, 대개의 本草書에서는 豨薺에 대하여 ‘苦寒, 有小毒’이라고 表現을 하였고, 이 敘述이 《證類備用本草》⁴⁾에서까지는 비록 高郵軍과 陳藏器의 異論이 있었으나 잘 지켜진 편이었다.

그러나 豨薺과 猪膏母가 混用이 된 다음 부터는 豨薺에 辛味가 包含이 되기 始作을 하였다. 간혹 有小毒이 無毒으로 變換한 것에 대하여서는 豨薺과 猪膏母를 混同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修治에 의하여 有小毒이 無毒으로 變換한 것을 說明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本草便方》²¹⁾에서 溫이라고 表現한 것은 “生用時에는 豨薺의 性이 寒하고 熟用할 때에는 溫한다.” 하였으므로 豨薺을 熟用한 것을 말함이라고 생각된다.

以後의 本草書에서 豨薺의 性味를 달리 表現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의문을 갖지 않고 主治症단을 比較하여 記載되었으나, 《圖經本草》와 《本草品彙精要》¹⁹⁾는 土地의 地質이 다른 이유라고 說明을 하고 있다.

4. 各 本草書에 記載된 歸經의 比較

豨薺의 歸經에 대한 資料는 最初의 文獻인 《新修本草》²⁾를 비롯하여 다시금 豨薺과 猪膏母를 나누어서 說明한 《本草綱目》⁵⁾에서도 밝힌 것이 없기 때문에 豨薺과 猪膏母의 比較에서는 歸經을 다

시금 說明할 意味가 없으나, 豨薺의 作用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記載된 文獻과 內容을 알아 보았다. <표7>

<표7>各 本草書에 記載된 歸經의 比較

冊名	歸經	冊名	歸經
新修本草	.	本草從新	.
千金翼方	.	本草述勾元	血分
證類備用本草	.	本草逢原	.
本草綱目	.	中藥臨床應用	.
本草蒙筌	.	中藥志	.
醫學入門	.	草木便方	.
東醫寶鑑	.	中藥學	肝 腎
本草品彙精要	.	中草藥學	肝 腎
得配本草	足厥陰經血分	中華藥海	肝 脾 腎
本草易讀	.	申氏本草學	肝 腎
神農本草經疏	入血分	中藥大辭典	肝 脾 腎
滇南本草	.	中醫要藥分類	入肝經, 兼入腎經, 肝經血分藥, 走而不洩, 香可開脾.
本草備要	.	本草學	肝 腎

歸經은 《新修本草》²⁾에서 부터 대개가 표시를 하지 않았으나, 본 調查資料에서는 清代에 이르러 歸經을 표시하기 시작하였는데 《得配本草》¹⁰⁾를 비롯하여 대개의 書籍들이 肝腎經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血分으로 入한다고 하였으나, 《神農本草經疏》¹²⁾에서는 豨薺의 냄새로 인하여 開脾祛邪의 作用이 있다고 하였고, 그 이후로 近來에 《中藥大辭典》²⁵⁾, 《中華藥海》²⁴⁾에서는 脾經으로도 入하게 된다고 하였다.

5. 各 本草書에 記載된 效能, 主治의 比較

豨薺의 效能과 主治에 대하여서는 最初의 記錄 文獻인 《新修本草》²⁾에서 “主熱腦煩滿, 不能食.” 이라고 記述이 되어 있으나, 후대에 내려오면서 별다른 說明도 없이 主治가 너무나 확장되어 理解된 부분이 많다. 이에 豨薺을 猪膏母와 比較해 가면서 混同된 점이 없는지와 더불어 豨薺의 主治가 어떻게 變化하였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였다.

먼저 豨薺과 猪膏母를 區別하였던 《新修本草》²⁾에서부터 《證類備用本草》⁴⁾까지를 같이 묶어 보고 變化된 것을 살펴보겠다. <표8>

《표8》 新修本草, 千金翼方, 證類備用本草에서의 비교

	豨薟	猪膏母
新修本草	主熱濕煩滿, 不能食.	主金瘡, 止痛, 斷血, 生肉, 除諸惡瘡, 消浮腫.
千金翼方	主熱濕煩滿不能食 海州豨薟 主熱濕, 煩滿不能食, 生搗汁, 服三四合, 多則令人吐	主金瘡止痛, 斷血生肉, 除諸惡瘡, 消浮腫
證類備用本草	圖經曰 云治肝腎風氣, 四肢麻痺, 骨間疼, 腰膝無力者, 亦能行大腸氣. …… 服之補虛, 安五藏, 生毛髮, 兼主風濕, 瘡肌肉頑痺, 婦人久冷, 尤宜服用之. 張詠云 眼目輕明, 即至千服, 鬚鬢烏黑, 筋力校律, 效驗多端. 臣本州有都押衙羅守, 一曾, 因中風逐馬, 失音不語, 臣與十服, 其病立痊, 又和尚智嚴, 年七十, 忽患偏風口眼喎邪, 時時吐涎, 臣與十服亦便得差今合	味辛苦平無毒. 主金瘡, 止痛, 斷血生肉, 除諸惡瘡, 消浮腫. 搗封之, 湯漬散傳并良. 今按別本注云 又療虎及狗咬瘡, 至良. 唐本先附. 陳藏器云 主久瘡痰癰. 生搗, 絞汁服, 得吐出痰. 亦碎傅蜘蛛咬, 蟲蠶咬, 蠅蝮漏瘡.

이것을 살펴 보면 豨薟은 처음에는 熱로 인한 煩滿에 生搗汁을 하여 服用을 하여서 熱煩을 풀어 주는 作用이 있는 것으로 《新修本草》²⁾에 記載가 되어 있고 《千金翼方》³⁾에서는 단지 《新修本草》²⁾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을 하는 데에 不過하였으나, 《證類備用本草》⁴⁾에서 부터 비로서 《圖經本草》와 張詠이 말한 것을 아래와 같이 引用하면서 서부터 현재 여러 가지로 混同이 나타나게 되는 祛風濕藥인지, 治風藥인지, 補益藥인지가 昏亂이 나타나게 되었다.

“圖經曰 云治肝腎風氣, 四肢麻痺, 骨間疼, 腰膝無力者, 亦能行大腸氣. …… 服之補虛, 安五藏, 生毛髮, 兼主風濕, 瘡肌肉頑痺, 婦人久冷, 尤宜服用之.”

張詠云 “眼目輕明, 即至千服, 鬚鬢烏黑, 筋力校律, 效驗多端. 臣本州有都押衙羅守, 一曾, 因中風逐馬, 失音不語, 臣與十服, 其病立痊, 又和尚智嚴, 年七十, 忽患偏風口眼喎邪, 時時吐涎, 臣與十服, 亦便得差, 今合.”

이에 일단은 《證類備用本草》⁴⁾에서 豨薟의 主治症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었으니, 《證類備用本草》⁴⁾를 根幹으로 하여 豨薟에 대한 主治症을 살펴보기로 하고, 猪膏母는 《新修本草》²⁾에서 說明한 主治가 “主金瘡止痛, 斷血生肉, 除諸惡瘡, 消浮腫.”으로 후에도 이 내용이 크게 變化하지를 않고 創傷을 誘發하는 原因이 호랑이와 개로 변하게 되기 때문에 “主金瘡止痛, 斷血生肉, 除諸惡瘡, 消浮腫.”로 認定을 하여 創傷과 浮腫에 사용하는 것으로 結論을 내리고 다른 부분으로 첨가되는 主治症

은 豨薟으로 보아 어떻게 主治症에 混同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아울러 主治에 대하여 서로가 異論을 제기하는 部分을 說明하였다. 《표9》

主治와 效能은 《新修本草》²⁾에서 “熱濕, 煩滿, 不能食.”을 治療하는 것으로 처음 記載되어 있으나, 《證類備用本草經》⁴⁾에서 主治의 症狀이 급격히 확대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특히 본래는 豨薟이 熱煩을 治療하는 藥으로 사용되었으나, 《證類備用本草》⁴⁾에서부터 治風하는 藥으로 認識이 되어 왔는데 이에 대하여 《神農本草經疏》¹²⁾에서는 “濕熱盛則生腫, 濕則煩滿不能食. 春生之藥本合風化. 風能勝濕. 苦寒除熱, 故主之也.”라고 하여 熱煩을 濕熱이 야기하는 것으로 認識을 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즉, 濕熱이 發生을 하여 人體內에서 막히게 되면 人體의 四肢가 麻痺가 되어 圓滑하게 움직이지가 않게 되는데 이때에 濕熱을 없애는 豨薟을 사용하게 되면 病이 낫게 된다는 理論이다.

다른 하나는 《本草述勾元》¹⁵⁾에서 말한 것으로 “生用, 治熱濕煩滿, 不能食. 搗汁服. 吐久瘡痰飲(心病也). 蒸曝用之. 甚益元氣. 治肝腎風氣, 四肢麻痺. 骨痛膝痛. 并偏風口吡. 時時吐涎, 入血分. 祛風除濕兼活血之要藥. 修治如法. 則走而不洩. 香可開脾. 治風之功斯倍(仲淳).”이라고 하여 豨薟을 生用을 하게 되면 단지 熱煩을 없애는 역할밖에 할 수가 없지만 豨薟을 九蒸을 하거나 修治을 거치게 되면 현재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祛風濕, 通經絡, 清熱解毒. 治風濕痺痛, 筋骨無力, 腰膝酸軟, 四肢麻痺, 半身不遂.”를 治療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補益

〈표9〉 기타의 本草書에서의 비교

	豨薟	猪膏母(豨薟의 錯誤)
本草綱目	治熱暈煩滿，不能食。 藏器 肝腎風氣，四肢麻痺，骨痛膝弱，風淫諸瘡	主金瘡止痛，斷血生肉，除諸惡瘡，消浮腫，蘇恭 主久瘡痰癩，搗絞汁服得吐，出痰；搗傳虎傷，狗咬，蜘蛛咬，蠶咬，螻蛄湯瘡。
本草蒙筌	治久滲濕痺，腰脚痠痛者殊功，搗生汁服之，主熱暈煩滿服多則吐。	
醫學入門	治肝腎行大腸氣，暈瘡煩滿汁少許。 主肝腎風氣，四肢麻痺，骨間疼痛，腰膝無力，偏風口喎，時時吐涎及跌墜失音，亦能行大腸氣，治三十六般風，久服明目烏鬚健骨，衰老風疾，婦人久冷尤宜。又治熱暈煩滿不能食。	
東醫寶鑑	主熱暈煩滿，治風痺	
本草品彙精要	圖經曰 治肝腎風氣，四肢麻痺，骨間疼，腰膝無力者，亦能行大腸氣，及風濕瘡，肌肉頑痺，婦人久冷。 別錄云 治中風失音不語，口眼喎斜，時吐涎沫。 圖經曰 補虛，安五臟，生毛髮。 別錄云 明眼目，烏鬚髮，壯筋力。	
得配本草	專治風濕四肢麻痺，筋骨疼痛，腰膝軟弱。	

	豨薟	猪膏母(豨薟의 錯誤)
神農本草經疏	治熱暈煩滿，不能食。疎○豨薟……祛風濕兼活血之要藥也。濕熱盛則生暈，濕則煩滿不能食。春生之藥本合風化，風能勝濕，苦寒除熱，故主之也。經曰：地之濕氣感則害人皮肉筋脈，故蘇頌。肝腎風氣，四肢麻痺，骨間疼痛，腰膝無力 及行大腸氣。成訥用以療中風，張詠用以輕身駐顏效已著於曩代功復見於今時妙在走而不洩香 可開脾邪去身安功力斯倍矣。	
本草備要	治肝腎風氣，四肢麻痺，筋骨冷痛，腰膝無力，臣吃百服，眼目清明，即至千服，鬚髮烏黑，筋力輕健，效驗多端	風濕瘡瘍
本草從新	治纏綿風氣 四肢麻痺 絕骨冷痛 腰膝無力 長於理風濕 畢竟是燥血之品 恃之爲補非是	風濕瘡瘍
滇南本草	治諸風風濕症，內無六經形症，外見半身不遂，口眼喎斜，痰氣壅盛，手足麻木，痿痺不仁，筋骨疼痛，濕氣流痰，癱瘓痿軟，風濕痰火，赤白癩風，鬚眉脫落等症。根，治婦人白帶。	
本草易讀	治肝腎風氣，療四肢麻木，筋骨冷痛之風，腰膝無力之濕。	解風濕諸瘡，金瘡惡瘡，敷蜘蛛諸傷，虎咬犬傷。

	豨薟	猪膏母(豨薟의 錯誤)
本草述勾元	生用治熱暈煩滿不能食，搗汁服。吐久瘡痰飲(心病也)，蒸曝用之，甚益元氣，治肝腎風氣，四肢麻痺，骨痛膝痛，并偏風口吡，時時吐涎，感少陽生發之氣以生，故爲陽草，入血分，祛風除濕兼活血之要藥，修治如法，則走而不洩，香可開脾，治風之功斯倍(仲淳)單服豨薟法，甚益元氣，治肝腎風氣，四肢麻痺，骨間冷，腰膝無力，亦能行大腸氣(頌)	除諸惡瘡，消毒腫，癰疽腫毒，一切惡瘡。
本經逢源	祛風除濕而兼活血之要藥，治風濕四肢麻痺，骨節冷痛，腰膝無力甚效，但脾胃兩虛，陰血不足而腰膝無力，骨痛麻痺者，大非所宜。或云甚益元氣，不稽之言也。生者搗服，能吐風痰，其能傷脾胃可知。	
中藥志	1. 抗炎作用 2. 降壓作用 3. 用于治療瘡疾，有一定治療。	

豨薟		猪膏母(豨薟의 錯誤)
中醫要藥分類	主熱顯煩滿不能食, 生搗汁服三四合, 多則令人吐. 本經. 主久瘡痰飲, 服汁取吐. 藏器. 治肝腎風氣, 四肢麻痺, 骨間疼痛, 腿膝無力, 及行大腸氣. 蘇頌. 療中風. 成訥.	
中藥學	祛風濕, 通經絡 風濕痺證; 麻木不遂	清熱解毒 癰腫瘡毒; 濕疹瘙癢
草木便方	四肢麻痺疼骨筋, 腰膝風濕瘡瘍洗, 肝脾腎虛陰血生.	
中華藥海	1. 祛風除濕, 通經活絡 本品走竅開泄, 其性盲熱, 祛風濕, 調血脈, 通經絡, 利關節. 可用于風濕痺痛, 中風等證. 2. 瘡疾 3. 退黃 4. 平肝降壓 6. 泄瀉	5. 疔瘡腫毒

豨薟		猪膏母(豨薟의 錯誤)
中藥臨床應用	祛風濕, 降血壓. 關節炎有明顯抗炎作用. 又前人說本品能益氣名目, 實際上只是燥血祛濕之品, 並沒有什麼補性. 主要用于治療四肢濕痺痛, 尤其腰膝冷痛, 代表方為豨薟丸和稀桐丸. 据臨床觀察, 豨薟丸治慢性風濕性關節炎, 呼吸氣粗, 咳嗽, 舌苔厚白, 唇乾有熱者用之亦可. 但較重的風濕性關節炎用之則收效不大. 稀桐丸主治一般風濕引起的筋骨痠痛. 此外, 動物實驗發現豨薟的浸液能降低血壓. 臨床上近年來也已識用豨薟治高血壓, 對兼有四肢麻木, 腰膝無力者較適宜, 可單用豨薟2~5錢, 煎湯代茶; 或配夏枯草等制丸服食, 此方如稀夏丸, 此方對肝陽上亢, 有頭痛, 頭暈, 目眩, 腳麻的高血壓患者更合適.	
中草藥學	祛風濕, 強筋骨. 用于風濕痹痛, 筋骨不利, 半身不遂, 豨薟草有祛風濕, 強筋骨之功, 常配伍臭梧桐同用. 一般認為本品生用有化濕熱作用, 適宜于痹痛偏于濕熱的病證以及濕熱瘡毒, 風疹濕瘍等證. 酒劑蒸熱又能強筋骨, 適用於四肢麻痺, 腰膝無力, 中風口眼喎斜, 半身不遂等證. 此外, 本品現在又用于 高血壓證, 有 降壓作用.	以及濕熱瘡毒, 風疹濕瘍等證.
申氏本草學	祛風濕 解腫毒 治四肢麻痺 骨筋冷痛 療腰膝無力 明目 補腎.	
中藥大辭典	② 降壓作用 祛風濕, 利關節, 降血壓. 治四肢麻痺, 筋骨疼痛, 腰膝無力, 瘡疾, 急性肝炎, 高血壓病.	① 抗炎作用 疔瘡腫毒, 外傷出血
本草學	祛風濕, 通經絡, 清熱解毒. 治風濕痺痛, 筋骨無力, 腰膝酸軟, 四肢麻痺, 半身不遂,	風疹濕瘡.

의 作用까지도 한다고 說明을 한 것이다.

그런데 後代에 내려오면서 “祛風濕, 通經絡, 清熱解毒. 治風濕痺痛, 筋骨無力, 腰膝酸軟, 四肢麻痺, 半身不遂.”에 대한 主治症의 내용에는 별다른 異論을 提起하지 않았으나, 《證類備用本草》⁴⁾中에 收錄된 《圖經》에서부터 補益作用을 說明하였는데 그 뒤로 많은 本草書에서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補益作用에 대한 說明으로 대개가 生用하지 않고 九蒸九曝한 熟用으로 인하여 藥理의 作用이 바뀐 것을 말하는 것으로 理解를 하고 있으나, 《本草從新》¹⁴⁾에서 부터 補益作用에 대해 “畢竟是燥血之品 恃之爲補非是.”라 하여서 疑懼心を 표

현하였으며 《中藥學》²⁾에서는 “亦有謂豨薟草有 補益作用者, 如《圖經本草》稱“服之補虛, 安五臟, 生毛髮.《分類草藥性》亦曰: “明目, 黑髮, 滋陰養血”. 實則本品生用苦寒有小毒, 制後微溫無毒, 但總爲祛邪之品, 稱其有補益之功殊言過其實, 正如《本草通玄》所云: “豨薟, 苦寒之品, 此有毒, 令人吐, 以爲生寒熱溫, 理或有之, 以爲生瀉熱補, 未敢盡信, 豈有苦寒搜風之劑, 一經蒸煮, 便有補益之功耶. 如用于虛證, 當與補肝腎, 益氣血之品配伍.””라 하여서 豨薟자체에 補益作用이 있는 것이 아니라 氣血을 益하게 하는 藥物로 같이 配伍하게 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作用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中藥臨床

《표9》新修本草, 千金翼方, 證類備用本草에서의 비교

冊名	修治方法
新修本草	生搗汁
千金翼方	生搗汁
證類備用本草	海州豨薟 生搗汁 圖經曰 法五月五日, 六月六日, 九月九日, 採其葉, 去根莖花實, 淨洗暴乾, 入甑中層層, 灑酒與蜜蒸之, 又暴如此九過, 則已氣味極香美熟, 搗篩蜜丸服之. 云治肝腎風氣, 四肢麻痺, 骨間疼, 腰膝無力者, 亦能行大腸氣. 成訥云 其葉當夏五月已來收, 每去地五寸, 剪刈以溫水洗泥土, 摘其葉及枝頭. 凡九蒸九暴, 不必大燥, 但取蒸爲度, 仍蒸搗爲末丸, 如桐子大, 空心溫酒或米飲下, 二三十丸, 復至二千丸, 所患忽加不得憂慮是藥攻之力, 復之四千丸, 必得復. 故五千丸當復丁壯……. 此藥與本草所述功效相異, 蓋出處盛在江東, 彼土人呼豨爲豨呼臭爲薟氣, 緣此藥如豨薟氣, 故以爲名. 但經蒸暴薟氣自泯, 每當服後, 順喫飯三五匙壓之. 五月五日採者, 佳.

《표10》기타의 本草書에서의 비교

冊名	修治方法
東醫寶鑑	薟氣經蒸暴則散, 五月五日六月六日九月九日採莖葉暴乾.
本草品彙精要	制 圖經曰淨洗入甑中層層灑酒酒與蜜蒸之又暴如此九過用 合治 五月五日 採去地五寸者 摘枝葉 九蒸九暴, 爲末丸 與梧子大 合酒, 或 米飲下, 二三十丸 治久患中風者 多服效.
得配本草	蜜酒伴蒸曬九次用. 或搗汁熬膏, 加生地, 甘草, 白蜜收之, 酒調下. 生搗汁服, 令人吐. 陰血不足, 脾胃兩虛, 二者禁用.

應用》¹⁹⁾에서는 “補益의 作用이 전혀 없다.” 라고 說明하였다.

이로 보건대 豨薟의 補益作用은 補益자체에 意味가 있는 것이 아니라 風濕을 祛하게 됨으로 인하여 筋肉의 不利가 消失되어 나타나는 것과 補益에 해당하는 藥物을 같이 配伍함으로 인하여 나타난다고 생각된다.

6. 各 本草書에 記載된 修治, 配伍와 그 效能의 차이점 比較

豨薟은 本來는 《新修本草》²⁾에서 生搗汁하여서 사용을 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修治의 方法은 表現이 없었고 《證類備用本草》⁴⁾에서 처음으로 九蒸九曝과 蜜丸에 대한 修治의 方法이 提示되었는데 그 뒤로 이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였으나, 後代에 오면서 더욱 추가된 부분은 藥物을 配伍하여 修治함으로 일어나는 作用에 대하여 說明을 한 것이다.

이에 採取의 時期 및 方法, 그리고 修治에 대한 내용을 《新修本草》²⁾와 《證類備用本草》⁴⁾를 비교하여 說明하고, 이에 後代에 어떻게 修治方法이 變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표9》

이처럼 《新修本草》²⁾에서 生搗汁을 한 것을 《千金翼方》³⁾에서는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證類備用本草》⁴⁾중에 收錄된 《圖經本草》에서 비로서 修治에 대하여 說明을 하게 되었다.

먼저 採取時期에 대하여 알아 보면 “五月五日, 六月六日, 九月九日, 採其葉, 去根莖花實.”한다고 하였으나. 아마도 날짜에 관한 것은 크게 의미를 둘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術家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왜냐하면 豨薟은 菊花科에 屬하기 때문에 梗葉花實을 去하기 위하여서는 가을이 되어야 완전히 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 뒤에 五月五일에 採取한 것이 좋다고 한 成訥의 말은 豨薟이 祛風濕을 하기 위하여서는 五月의 陽이 接치는 때에 陽氣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로 인하여 後代의 本草書에서 豨薟의 採取時期는 대개의 경우가 陰曆으로 숫자가 接치는 날과 五月五日로 정해지게 되었다.

豨薟의 修治法으로는 마찬가지로 《圖經》에서 말한 九蒸九曝이 처음으로 提起되었으며 이때부터 九蒸九曝을 後代의 本草書에서 따르게 되었다.《표10》

《표10》기타의 本草書에서의 비교

冊名	修治方法
本草綱目	生搗汁服則令人吐. 故云有小毒. 九蒸九曝則補人去瘰. 故云無毒. 生則性寒. 熟則性溫. 云熟者非也 [附方]新五 風寒泄瀉. 火炊丸. 治風氣行於腸胃泄瀉. 火炊草爲末. 醋糊丸梧子大. 每服三十九. 白湯下. 聖濟總錄. 癰疽腫毒. 一節惡瘡. 獐豨草端午采者. 一兩. 乳香一兩. 白礬燒半兩. 爲末. 每服二錢. 熱酒調下. 毒重者連. 進三服. 得汗妙. 乾坤秘韞. 發背疔瘡. 獐豨草. 五葉草. 即五爪龍. 野紅花. 即小薊. 大蒜. 等分. 播爛. 入熱酒一盃. 絞汁服. 得汗立效. 乾坤生意. 疔瘡腫毒. 端午采獐豨草. 一乾爲末. 每服半兩. 熱酒調下. 汗出即愈. 極有效驗. 集簡方. 反胃吐食. 火炊草. 焙爲末. 蜜丸梧子大. 每沸湯下五十丸. 百一選方.
本草蒙筌	五六月採收(五月五日 六月七日 七月七日 並宜收採) 枝葉花實俱用(惟去鬚莖) 密酒層層和灑. 九蒸九曝完全. 細末研成. 密丸豆大蚤起空腹吞服. 酒下多寡隨宜. 療暴中風邪口眼喎斜者立效. 治久疹瀰痺. 腰脚痠痛者殊功. 搗生汁服之. 主熱癰煩滿服多則吐. 方便圓葉如式修製. 腹誠益人. 百服則耳目聰明千服則鬚髮烏黑. 追風逐濕猶作泛閑. 古方每竭贊揚. 深功難盡者述可見至賤之類却有殊常之能醫者不可因賤而不收. 病家亦勿謂賤而不製服也.
醫學入門	生搗汁. 蒸法爲丸.

冊名	修治方法
神農本草經疏	生搗汁 獐豨如法修寧一斤 入漆葉四兩 亦以蜜酒潤過 九蒸九曬 蜜和丸如梧子大 每五錢空心饑時白湯吞 日三服 治紫雲風爛麻風有神 當夏五月已來收每去地五寸翦利 以溫水洗去泥土 摘其葉及枝頭 凡九蒸九曝 不必太燥 但取蒸足數爲度 仍熬搗爲末煉蜜丸如梧子大 空心溫酒. 或米飲下二三十丸 服至二千丸 所患愈. 加不得憂慮 是藥攻之力. 服至四千丸 必得復丁壯. 但經蒸曝氣自泯 每當服後須喫飯三五匙壓之 五月五日采者佳.
本草備要	以五月五日, 六月六日, 七月七日, 九月九日, 採者尤佳, 去粗莖, 留枝葉花實, 酒伴蒸曬九次, 蜜丸甚益元氣, (獐豨辛苦氣寒故必蒸曬九次加以酒蜜則苦寒之陰濁盡去而清香之美味見矣數不至九陰濁未盡則不能透骨搜風而欲能祛病也) 搗汁熬膏, 以甘草生地煎膏, 煉蜜三味收之, 酒調服尤妙.
本草從新	以五月五日 六月六日 七月七日 採者尤佳 去粗莖留枝葉花實 酒拌蒸曬九次蜜丸 (獐豨辛苦氣寒必蒸曬九次加以酒蜜則苦寒之陰濁盡去而清香之美味見矣數不至九陰濁未盡不能透骨搜風而却病也) 搗汁熬膏 以生地甘草煎膏煉蜜三味收之 酒調尤妙 (風氣行於腸胃泄瀉菹豨爲末醋糊丸桐子大海三十九自湯下)
本經逢源	採葉陰乾, 入甌中層層灑酒與蜜, 九蒸九曬與蜜. 時珍曰 生搗汁服則令人吐. 故云有小毒. 九蒸九曬則去風瘰. 故云無毒. 或云甚益元氣, 不稽之言也. 生者搗服, 能吐風痰. 其能傷脾胃可知.
本草易讀	瀉因風者, 爲末, 醋丸服. 驗方第一. 癰疽腫毒, 一切惡瘡. 同乳香, 枯礬末, 每酒下二錢, 汗出. 第二. 附 獐豨膏方 獐豨草不拘多少, 搗汁, 入沙鍋內熬成膏, 日晒夜露九次後入藥. 全秦歸 熟地, 甘草, 共爲末, 入獐豨膏內, 煉蜜爲丸, 每服三錢, 水酒溫服. 論: 獐豨草有小毒. 用甘草和中解毒, 用當歸, 熟地 補血養血. (未治風寒先治血), 血靜風自滅 (附方)治婦人白帶症. 年少濕痰下注, 用之效, 老弱勿用. [獐豨草 五錢 水煨, 点水酒服] 玉泉丹, 治男婦老幼咳嗽氣喘, 吐咯黃痰, 白沫口涎. 獐豨草不拘多少, 水酒拌之, 九蒸, 九晒, 九露爲末, 煉蜜爲丸, 每服三錢水送下.

冊名	修治方法
中藥臨床應用	① 獐豨丸(張水方): 獐豨葉和嫩枝經數次蒸晒後, 微焙爲末, 煉密丸, 每服3錢, 早,晚用溫開水或米湯送服(能飲酒者可用小量酒送) ② 稀桐丸(成藥): 每日服 2次, 每次2~3錢, 或按以下配方: 獐豨草 8兩, 臭梧桐 1斤, 共研細末, 煉蜜爲丸如梧桐子大, 早晚各2錢用米湯(或溫開水)送服. ③ 獐夏丸: 獐豨草 3兩 夏枯草 3兩 龍膽草 5錢 共研細末, 煉蜜爲丸, 早晚各3錢, 開水送服
中藥志	夏, 秋開花前或花期均可采收, 割取地上部全草, 切段或扎成小捆, 晒乾或陰乾
草木便方	入丸劑, 散劑, 或水煎服; 外用鮮品搗敷或蒸水洗.

冊名	修治方法
本草述勾元	<p>外萼有細刺粘人采於五月五日者佳。采之以夏取其暢氣活血。隨加蒸暴。俾之合宜。生則性寒。搗汁服。令人吐。故有小毒。熟則性溫無毒。九蒸九曝。能去痺補人。生用治熱濕煩滿不能食。除諸惡瘡。消毒腫。搗汁服。吐久瘡痰飲(心病也)。蒸曝用之。甚益元氣。治肝腎風氣。四肢麻痺。骨痛膝痛。并偏風口吡。時時吐涎。感少陽生發之氣以生。故為陽草。入血分。祛風除濕兼活血之要藥。修治如法。則走而不洩。香可開脾。治風之功斯倍(仲淳)單服豨薟法。五月五日。六月六日。九月九日。采葉去根莖花實。淨洗曬乾。入甌中層層灑酒與蜜蒸之。又曬。如此九過。氣味極香美。熬搗篩末。蜜丸服之。甚益元氣。治肝腎風氣。四肢麻痺。骨間冷。腰膝無力。亦能行大腸氣。(頌)去根連莖葉細剉。搗爛取汁。熬煉成膏。以甘草熟地膏煉蜜。三味收之。出火毒。酒調服。功難具述。(土材)按此法。毒去而功全。但未試驗。恐入地黃。又能滯耳。癰疽腫毒。一切惡瘡。豨薟草(端午采者)一兩。乳香一兩。白礬燒半兩。為末。每服二錢。熱酒調下。毒重者連進三服。得汗妙。疔瘡腫毒。端午采豨薟草。日乾為末。每服半兩。熱酒調下。汗出得愈。按癰腫必有臟腑乖變。關竅不得宣通而然。此物生者大能導熱活血消滯。故主療如上。反胃吐食。豨薟草焙為末。蜜丸梧子大。每沸湯下五十九。凡患四肢麻痺。骨間疼腰膝無力。由於外因風濕者。生用。不宜熟。若內因屬肝腎陽虛。陰血不足者。九製用。不宜生。九製豨薟起癱瘓方。單采豨薟草十斤。洗淨。陰乾為末羅取淨細麵聽製。一次用生葱川烏各六兩先將藥末蜜酒拌勻。放甌中。後以葱烏切碎鋪藥上。蒸一炷香。取起曬大半乾。二次用生薑草烏去皮尖各六兩。切碎。如前蒸法。三次用泔製芋朮威靈仙各六兩。切碎蒸如法。四次用姜獨活各六兩。洗淨切碎蒸法如前。五次用五加皮薏仁各六兩。俱切碎。蒸法如前。六次用川牛膝桂梗各六兩切碎蒸如前法。七次用地黃當歸各六兩切碎蒸如前法。八次用防風川斷各六兩切碎蒸如前法。九次用天麻石斛各六兩切碎蒸如前法蒸完以煉蜜拌藥。入石臼中搗丸如梧子大曬乾。每日空心好淡酒。或鹽開水。下五六十丸。久自愈。[修治]所用止葉及頭上枝。此下皆不用而實又可知。以實結於秋末則氣收也。每去地五寸藟。溫水洗去泥土。摘葉及枝頭乾。九蒸九曬入蒸時。用蜜酒灑之。鋪一層灑一層乃得勻也。此味忌鐵石器。搗為末用之。</p>

冊名	修治方法
中藥學	<p>夏、秋二季花開前及花期均可采割，除去雜質，曬乾。切碎生用，或加黃酒蒸制用，名酒豨薟草。【配伍應用】1.本品能祛風濕，利關節，故可用于風濕痺證，骨節疼痛。因其又善通經活絡，故亦常用于肢體拘攣，四肢麻木，腳弱無力以及中風手足不遂諸證。可酒蒸晒以減少苦寒之性，單用煉蜜為丸服；若與臭梧桐合用，則在祛風濕和降血壓方面均有協同作用，此即《拔萃良方·卷二》豨薟丸。2.本品苦寒又能清熱解毒止痒，可用于癰腫瘡毒，濕疹濕瘡，皮膚瘙痒諸證。多生用，可配合有關藥物內服或外用。此外，本品還可用于治療黃疸及瘡疾。現代又用治高血壓病。治風濕痺證多制用；清熱解毒宜生用。亦有謂豨薟草有補益作用者，如《圖經本草》稱“服之補虛，安五臟，生毛髮。”《分類草藥性》亦曰：“明目，黑髮，滋陰養血”。實則本品生用苦寒有小毒，制後微溫無毒，但總為祛邪之品，稱其有補益之功殊言過其實，正如《本草通玄》所云：“豨薟，苦寒之品，此有毒，令人吐，以為生寒熟溫，理或有之，以為生瀉熟補，未敢盡信，豈有苦寒搜風之劑，一經蒸煮，便有補益之功耶。如用于虛證，當與補肝腎，益氣血之品配伍。</p>
中草藥學	洗淨，灑乾，切碎用。
申氏本草學	修治：葉을 甌에 넣고 酒拌하여 9次 蒸晒하여 使用한다.
中華藥海	<p>1. 配海桐皮 海桐皮苦辛平，入血分，祛風除濕，通絡止痛，偏于走上。豨薟草祛風除濕，活血通絡，解毒降壓，兩藥配伍應用，功能祛風除濕，通利血脈，降低血壓。可治療風濕痺痛，筋骨不利，骨折疼痛，四肢麻木，半身不遂或小兒麻痺後遺症。2. 配威靈仙 兩藥皆能祛風濕之痛。豨薟草善利筋骨，威靈仙于經絡，兩藥相須為用，功效更著。可治風濕，筋骨疼痛，四肢麻木等。3. 配臭梧桐 豨薟草祛風除濕，臭梧桐舒筋活血，兩藥相配則祛風濕，活血功效加強，可治風濕痺痛，麻木。</p>
中藥大辭典	<p>夏季開花前割取全草，除去雜質，曬至半乾後，再置通風處涼乾。豨薟草：揀去雜質，除去殘根與老莖，先科下葉別放，將莖洗淨，用水浸泡，透出，潤透後切段，曬乾，再與葉和勻。製豨薟草：取淨豨薟草段，用黃酒拌勻(一法，用蜂蜜加等量的黃酒和洋拌勻)，酒吸乾後，置蒸籠內蒸爛，取出曬至半乾，再蒸至黑色為度。(每豨薟草100斤用黃酒20斤)</p>

冊名	修治方法
本草學	雜質을 除去하고 癰腫과 濕疹에는 生用하고, 風濕痺證에는 黃酒蒸用한다. (1) 羌活 威靈仙 秦朮 등을 配合하여 風濕痺痛과 筋骨不利 및 肌膚麻木 등 證을 治療한다. (2) 臭梧桐과 配合하여 中風으로 인한 口眼歪斜, 言語蹇澀, 半身不遂 등 證을 治療한다. (3) 白鮮皮 蒼耳子 등을 配合하여 濕熱瘡毒과 風疹濕痒을 治療한다.

豨薺는 《新修本草》²⁾에서 單服을 하는데 처음에는 生搗汁을 하여서 주로 生用으로 사용하였으나 多服하게 되면 嘔吐를 유발하는 副作用이 있다고 처음 記載 되었기 때문에 《本草綱目》⁵⁾에서는 이것으로 인하여 小毒이라고 표현을 하게 된 것이다. 때문에 《本經逢源》¹⁶⁾에서는 “脾腎兩虛, 陰血不足而腰膝無力, 骨痛癱痺者, 大非所宜. 或云甚益元氣, 不稽之言也. 生者搗服, 能吐風痰. 其能傷脾胃可知.”라고 하여 脾胃가 虛弱한 사람에게는 적당하지 않고 또한 苦寒한 藥物이 肝腎의 陰虛로 病이 된 者에게는 禁忌事項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표현하였다.

본래 《證類備用本草》⁴⁾에서는 修治을 함으로 인하여 主治의 變化를 나타내는 것으로 表現을 하고 있으나, 李時珍은 《本草綱目》⁵⁾에서 “生搗汁服則令人吐. 故云有小毒. 九蒸九曝則補人去痺. 故云無毒.”이라고 하여 吐하는 副作用을 小毒으로 表現을 하였고 이러한 毒을 없애기 위하여 九蒸九曝을 한다고 說明을 하였다. 반면에 《東醫寶鑑》⁸⁾에서는 “莢氣經蒸暴則散.” 이라고 하여 豨薺을 服用하고 吐하는 것이 豨薺의 독특한 냄새 때문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修治을 함으로 인하여 냄새가 소멸되는 것이라고 說明을 하였다. 그러나 특별하게 九次를 말한것은 《本草從新》¹⁴⁾에서는 “豬薺, 辛苦氣寒, 必蒸曬九次, 加以酒蜜, 則苦寒之陰濁, 盡去而清香之美味, 見矣. 數不至九, 陰濁未盡, 不能透骨, 搜風而却病也.”라고 하여 豨薺이 苦寒하기 때문에 九蒸九曝을 거침으로 인하여 豨薺의 陰寒한 것을 풀 수가 있게 되고 九陽의 힘을 얻어서 능히 밖으로 끌고 나가서 風을 없애는 것이라고 說明을 하였다.

豨薺을 修治하는 것은 이 毒을 없애기 위한 것과 治療의 效果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表現이 되는데 《證類備用本草》⁴⁾에서 引用한 《圖經本草》에서 처음으로 九蒸九曝을 말하였으며, 이후로 豨薺을 九蒸九曝하여 服用하였다. 그러므로 인하여 豨薺의 苦寒하고 有小毒한 性質이 없어지게 되고

祛風濕을 하는 作用과 아울러 補益하는 作用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또한 《本草綱目》⁵⁾에 이르러서는 主治症에 따라서 配伍하는 藥物과 같이 修治하는 것이 나타나, 楊¹⁴⁾등이 이를 引用하여 使用하였으며 近代에 이르러 《中華藥海》²⁴⁾등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각 主治에 따른 修治方法의 차이와 配伍를 겸하여 丸으로 服用을 하여 治療效果를 더욱 높이려고 하였다.

III. 考 察

豨薺이 最初로 記載된 文獻은 唐 顯慶 2년에 쓰인 蘇敬의 《新修本草》²⁾로 《本草品彙精要》⁹⁾에서 “別錄云 「治中風失音不語, 口眼喎斜, 時吐涎沫.」, 別錄云 「明眼目, 烏髭髮, 壯筋力.」”이라고 하여 마치 隋唐時代의 陶弘景이 저술한 《名醫別錄》¹⁾에서 引用한 것으로 誤解의 소지가 있으나, 《名醫別錄》¹⁾에서는 豨薺과 類似하게 생겼다고 《本草綱目》⁵⁾에서 말한 ‘類鼻’에 대하여 “類鼻 味酸, 溫, 無毒. 主痿痺. 生田中高地, 葉如天名精, 葉根五月采.”라고 說明하고 있을 뿐이고 豨薺, 또는 豬膏母에 대한 敘述은 없다.

또한 《新修本草》²⁾에 “豨薺, 味苦, 寒, 有小毒. 主熱腦煩滿, 不能食. 生搗汁, 服三, 四合, 多則令人吐. 葉似酸漿而挾長, 花黃白色, 一名火薺, 田野皆識之. 新附.” 라고 되어 있어 《新修本草》에서 처음으로 記載된 것으로 나타난다.

처음에 《新修本草》²⁾에 記載될 당시에는 豨薺과 豬膏母를 나누어 분류를 하여 다른 藥物로 이해를 하였으며 이에 主治症도 역시 다르게 表現이 되어 있었다. 즉, 豬膏母는 주로 創傷에 많이 사용되어 그 異名 역시 豬膏母 外에도 호랑이에게 물렸을 때에 바른다고 하여 ‘虎膏’, 개에게 물렸을 때에 바른다고 하여 ‘狗膏’라는 異名을 얻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異名으로 나타나고 있는 虎膏,

猪膏, 狗膏 등은 엄격히 말하자면 豨薺의 異名이 아니라 猪膏母의 異名인 것이다.

처음에 《新修本草》²⁾에서 豨薺과 猪膏母를 구별하여 說明을 할 때에는 단지 豨薺을 “葉似酸漿而挾長, 花黃白色”이라고 表現을 하였고, 猪膏母는 “葉似蒼耳, 莖圓有毛”라고 하여 豨薺과 猪膏母의 差異가 단지 털의 有無만으로 區別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바로 다음 代인 《證類備用本草》⁴⁾에서 引用한 것에서는 비록 《證類備用本草》⁴⁾가 豨薺과 猪膏母를 달리 表現을 하고 있었지만 豨薺의 引用에서 “張詠云: 『其草頗有異, 金稜銀線, 素根紫莖, 對節而生. 蜀号火杵, 莖葉頗同蒼耳.』”을 引用한 것으로 인하여 여기에서부터 火杵를 比較 引用을 하면서 猪膏母와 약간 混同을 하기 始作을 하였으니 바로 ‘莖葉이 頗同蒼耳.’라고 한 것에서부터이다.

豨薺의 同屬植物로는 진득찰속에 진득찰(*Siegesbeckia glabrescens*), 제주진득찰(*Siegesbeckia orientalis* L.), 털진득찰(*Siegesbeckia pubescens*)로 나뉘는데 진득찰은 털진득찰에 비하여 줄기와 잎에 털이 없고 꽃자루에 선이 없는 것이 특징이고, 제주진득찰은 진득찰과 털진득찰에 비하여 줄기가 又狀으로 갈라지고 잎의 하부는 불규칙하게 淺裂하는 것이 특징이며, 털진득찰은 진득찰에 비하여 줄기와 잎뒤에 맥상에 백색의 긴털이 密生을 하고 잎이 大形이며 花梗에 흔히 腺毛가 있고 瘦果는 2.5~3.5mm로 보다 길다.³⁾

그러나 현재에 진득찰과 털진득찰로 부분되고 있는 腺梗豨薺과 毛梗豨薺를 살펴 보면 비록 腺梗豨薺이라고 할지라도 역시 털이 약간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옛 문헌에서 말한 대로 털의 유무만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때문에 以後의 書籍들이 豨薺과 猪膏母를 混同하여 使用을 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弊端이 많았기 때문에 《本草綱目》⁵⁾에서 비로서 이러한 弊端을 바로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後世의 本草書에서 이와 같은 李時珍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混用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注目할 만하다. 이처럼 豨薺과 猪膏母가 混同을 하여 오다가 近代에 이르러 分類學이 나타나게 되면서 豨薺과 猪膏母를 하나로 認識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진득찰과 털

진득찰에 대하여 同屬近緣植物로 同一化한 것으로 豨薺를 豨薺, 혹은 腺梗豨薺으로 分類를 하고 猪膏母를 毛梗豨薺으로 分類한 것을 말한다.

《新修本草》²⁾에서 처음으로 豨薺를 “苦寒 有小毒”이라는 表現을 하였고 猪膏母는 “苦辛平 無毒”이라는 表現을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대개의 本草書에서는 豨薺에 대하여 “苦寒, 有小毒”이라고 表現을 하였고 이 敍述이 《證類備用本草》⁴⁾에서까지는 비록 高郵軍의 豨薺이 熱하다는 表現과 陳藏器의 無毒하다는 異論이 있었으나 잘 지켜진 편이었다.

그러나 豨薺과 猪膏母가 混用이 된 다음 부터는 豨薺에 辛味가 包含이 되기 始作을 하였는데 이것은 猪膏母의 味를 加한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간혹 有小毒이 無毒으로 變한 것에 대하여서는 豨薺과 猪膏母를 混同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도 修治에 의하여 有小毒이 無毒으로 變한 것을 說明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草木便方》²¹⁾에서 溫이라고 表現한 것은 “生用時에는 豨薺의 性이 寒하고 熟用할 때에는 溫한다.” 하였으므로 豨薺를 熟用한 것을 말함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高郵軍이 豨薺이 熱하다고 한 표현은 비록 《圖經本草》에서는 土地의 地質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나 《本草綱目》⁵⁾에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을 짓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土地의 地質이 다르다고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는 것 같다.

歸經은 《新修本草》²⁾에서 부터 대개가 표시를 하지 않았으나, 본 調査資料에서는 清代에 이르러 歸經을 표시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清代에 이르러서 明代의 歸經理論이 발전된 데에다 考證學의 復興으로 《神農本草經》등에 대한 註釋家가 많이 나오게 되면서 옛 것을 歸經論으로 認識을 하려고 했던 것 같다. 《得配本草》¹⁰⁾를 비롯하여 대개의 書籍들이 肝腎經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血分으로 入한다고 하여 대개의 本草書들이 이 理論을 그대로 답습하였으나, 《神農本草經疏》¹²⁾에서는 豨薺의 독특한 냄새로 인하여 開脾祛邪의 作用이 있다고 하였고, 그 이후로 近來에 中藥大辭典, 中藥藥海에서는 脾經으로도 入하게 된다고 하였다.

主治와 效能은 《新修本草》²⁾에서 “熱腫, 煩滿,

不能食.”을 治療하는 것으로 처음 記載되어 있으나, 《證類備用本草經》⁴⁾에서 主治의 症狀이 급격히 확대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특히 본래는 豨薺이 熱煩을 治療하는 藥으로 사용되었으나, 《證類備用本草》⁴⁾에서 부터 治風하는 藥으로 認識이 되어 온 것에 대하여 《神農本草經疏》¹²⁾에서는 “濕熱盛則生腫, 濕則煩滿不能食. 春生之藥本合風化. 風能勝濕. 苦寒除熱, 故主之也.”라고 하여 熱煩을 濕熱이 惹起하는 것으로 認識을 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즉, 濕熱이 發生을 하여 人體內에서 막히게 되면 人體의 四肢가 麻痺가 되어 圓滑하게 움직이지가 않게 되는데, 이때에 濕熱을 없애는 豨薺를 사용하게 되면 病이 낫게 된다는 理論이다.

다른 하나는 《本草述勾元》¹⁵⁾에서 말한 것으로 “生用, 治熱腫煩滿, 不能食. 搗汁服. 吐久瘡痰飲(心病也). 蒸曝用之. 甚益元氣. 治肝腎風氣. 四肢麻痺. 骨痛膝痛. 并偏風口吡. 時時吐涎., 入血分. 祛風除濕兼活血之要藥. 修治如法. 則走而不洩. 香可開脾. 治風之功斯倍(仲淳).”이라고 하여 豨薺를 生用을 하게 되면 단지 熱煩을 없애는 역할밖에 할 수가 없지만 豨薺를 九蒸을 하거나 修治을 거치게 되면 현재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祛風濕, 通經絡, 清熱解毒. 治風濕痺痛, 筋骨無力, 腰膝酸軟, 四肢麻痺, 半身不遂.”를 治療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補益의 作用까지도 한다고 說明을 한 것이다.

그런데 後代에 내려오면서 각 本草書에서 “祛風濕, 通經絡, 清熱解毒. 治風濕痺痛, 筋骨無力, 腰膝酸軟, 四肢麻痺, 半身不遂.”에 대한 主治症의 내용에는 별다른 異論을 提起하지 않았으나, 《證類備用本草》中에 收錄된 《圖經》에서 부터 補益作用을 說明하였는데 그 뒤로 많은 本草書에서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補益作用에 대한 說明은 대개가 生用하지 않고 九蒸九曝한 熟用으로 인하여 藥理의 作用이 바뀐 것을 말하는 것으로 理解를 하였다.

그러나 《本草從新》¹⁴⁾에서 부터 補益作用에 대해 “畢竟是燥血之品 恃之爲補非是.”라 하여서 疑懼心을 표현하였으며 《中藥學》²²⁾에서는 “亦有謂豨薺草有補益作用者, 如《圖經本草》稱‘服之補虛, 安五臟, 生毛髮.’《分類草藥性》亦曰:‘明目, 黑髮, 滋陰養血.’ 實則本品生用苦寒有小毒, 制後微溫

無毒, 但總爲祛邪之品, 稱其有補益之功殊言過其實, 正如《本草通玄》所云:‘豨薺, 苦寒之品, 此有毒, 令人吐, 以爲生寒熱溫, 理或有之, 以爲生瀉熱補, 未敢盡信, 豈有苦寒搜風之劑, 一經蒸煮, 便有補益之功耶’. 如用于虛證, 當與補肝腎, 益氣血之品配伍.”라 하여서 豨薺자체에 補益作用이 있는 것이 아니라 氣血을 益하게 하는 藥物로 같이 配伍하게 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作用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中藥臨床應用¹⁹⁾에서는 “補益의 作用이 전혀 없다.”라고 說明하였다.

이로 보건대 豨薺의 補益作用은 補益자체에 意味가 있는 것이 아니라 風濕을 祛하게 됨으로 인하여 筋肉의 不利가 消失되어 나타나는 것과 補益에 해당하는 藥物을 같이 配伍함으로 인하여 나타난다고 생각된다.

豨薺의 採取時期에 대하여 알아 보면 《新修本草》²⁾에서는 별다른 理論이 記載되지 않았으나, 《證類備用本草》⁴⁾에서 “五月五日, 六月六日, 九月九日, 採其葉, 去根莖花實.”한다고 하였는데 아마도 날짜에 관한 것은 크게 의미를 둘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術家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왜냐하면 豨薺는 菊花科에 屬하기 때문에 梗葉花實을 去하기 위하여서는 가을이 되어야 완전히 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 뒤에 五月五일에 採取한 것이 좋다고 한 成訥의 말은 豨薺이 祛風濕을 하기 위하여서는 五月의 陽이 겹치는 때에 陽氣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로 인하여 後代의 本草書에서 豨薺의 採取時期는 대개의 경우가 陰曆으로 숫자가 겹치는 날과 五月五日로 정해지게 되었으며, 近代에 와서는 이러한 術家의 理論이 없어져서 특별히 五月五日, 六月六日, 九月九日의 개념보다는 단순히 여름에서 가을로 가기 전, 즉 開花하기 전에 採取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豨薺의 修治法으로는 《圖經》에서 말한 九蒸九曝이 처음으로 提起되었으며 이때부터 九蒸九曝을 後代의 本草書에서 따르게 되었다. 豨薺는 《新修本草》²⁾에서 單服을 하는데 처음에는 生搗汁을 하여서 주로 生用으로 사용하였으나 多服하게 되면 嘔吐를 유발하는 副作用이 있다고 처음 記載되었기 때문에 《本草綱目》⁵⁾에서는 이것으로 인하여 小毒이라고 표현을 하게 된 것이다. 때문에 《本

經逢源》⁴⁾에서는 “脾胃兩虛，陰血不足而腰膝無力，骨痛麻痺者，大非所宜。或云甚益元氣，不稽之言也。生者搗服，能吐風痰。其能傷脾胃可知。”라고 하여脾胃가 虛弱한 사람에게는 적당하지 않고 또한 苦寒한 藥物이 肝腎의 陰虛로 病이 된 者에게는 禁忌事項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표현하였다.

본래 《證類備用本草》⁴⁾에서는 修治을 함으로 인하여 主治의 變化를 나타내는 것으로 表現을 하고 있으나, 李時珍은 《本草綱目》⁵⁾에서 “生搗汁服則令人吐。故云有小毒。九蒸九曝則補人去痺。故云無毒。”이라고 하여 吐하는 副作用을 小毒으로 표현을 하였고 이러한 毒을 없애기 위하여 九蒸九曝을 한다고 說明을 하였다. 반면에 《東醫寶鑑》⁸⁾에서는 “菴氣經蒸暴則散.”이라고 하여 菴菴을 服用하고 吐하는 것이 菴菴의 독특한 냄새 때문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修治을 함으로 인하여 냄새가 소멸되는 것이라고 說明을 하였다. 그러나 특별하게 九次를 말한것은 《本草從新》¹⁴⁾에서는 “菴菴，辛苦氣寒，必蒸曬九次，加以酒蜜，則苦寒之陰濁，盡去而清香之美味，見矣。數不至九，陰濁未盡，不能透骨，搜風而却病也.”라고 하여 菴菴이 苦寒하기 때문에 九蒸九曝을 거침으로 인하여 菴菴의 陰寒한 것을 풀 수가 있게 되고 九陽의 힘을 얻어서 능히 밖으로 끌고 나가서 風을 없애는 것이라고 說明을 하였다.

菴菴을 修治하는 것은 이 毒을 없애기 위한 것과 治療의 效果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표현이 되는데 《證類備用本草》⁴⁾에서 引用한 《圖經本草》에서 처음으로 ‘九蒸九曝’을 말하였으며, 이후로 菴菴을 九蒸九曝하여 服用하였다. 그러므로 인하여 菴菴의 苦寒하고 有小毒한 性質이 없어지게 되고 祛風濕을 하는 作用과 아울러 補益하는 作用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또한 《本草綱目》⁵⁾에 이르러서는 主治症에 따라서 配伍하는 藥物과 같이 修治하는 것이 나타나, 楊¹⁵⁾등이 이를 引用하여 사용하였으며 近代에 이르러 《中華藥海》²⁴⁾등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각 主治에 따른 修治方法의 차이와 配伍를 겸하여 丸으로 服用을 하여 治療效果를 더욱 높이려고 한 것으로 생각된다.

IV. 結 論

菴菴에 대하여 文獻의으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菊花科(Compositae) 진득찰속의 植物중 진득찰(Siegesbeckia glabrescens Makino), 제주진득찰(Siegesbeckia orientalis L.)은 菴菴이고, 털진득찰(Siegesbeckia pubescens)은 豬膏母임을 알 수 있었다.

2. 菴菴의 性味는 生用時 苦寒 有小毒한데 熟用하면 無毒 溫 하여지며, 豬膏母의 性味는 苦辛 平 無毒함을 알 수 있었다.

3. 菴菴의 歸經은 肝, 脾, 腎經이 되고 血分으로 入함을 알 수 있었다.

4. 菴菴의 主治와 效能은《新修本草》²⁾에서 熱 瀉, 煩滿, 不能食을 治療하는 것으로 記載되어 있고, 《證類備用本草經》⁴⁾에서 主治症이 확대되었으나, 이 여러 主治證은 濕熱을 없애는 것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作用이고,《圖經》에서부터 補益作用을 說明하였으나, 菴菴자체에 補益作用이 있는 것은 아니고, 菴菴이 祛風濕을 하여 筋脈不利를 解하게 하므로 強筋骨하게 되어 補肝腎이라 한 것으로, 이 때문에 補益作用이 있다고 한 것이다.

5. 豬膏母의 主治證은 주로 瘡傷을 다스리는데에 局限되기 때문에 菴菴의 主治症 中에서 瘡傷을 다스리는 것은 豬膏母의 混同임을 알 수가 있었다.

6. 菴菴의 修治에 대하여《證類備用本草》⁴⁾以後에서 부터 九蒸하여 蜜丸으로 사용하였는데 이 유는 性이 寒하고 有小毒하여서 많이 服用하거나 生用하게 되면 嘔吐의 副作用이 있고, 또한 菴菴 자체에 독특한 냄새로 인하여 嘔吐의 우려가 있으며, 菴菴이 苦寒하기 때문에 脾胃가 虛하거나 肝腎의 陰虛로 인하여 病이 된 者에게는 적당하지 않게 되므로 九蒸九曝을 하여 이 毒을 없애고 냄새를 풀며, 苦寒한 것을 없애기 때문에 修治을 始作하였다.

以上の 結果로 보아 菴菴과 豬膏母의 效能主治를 具體의으로 구별 비교하고 菴菴의 사용에 있어서 生用時와 曬乾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그리고 九蒸하여 蜜丸으로 使用하였을 경우에 대한 實驗的 研究가 必要하다고 본다.

IV. 參考文獻

1. 陶弘景; 名醫別錄, 人民衛生出版社 1986年
2. 蘇敬; 新修本草, 安徽科學技術出版社 1981年
3. 孫思邈; 千金翼方, 自由出版社 1959年
4. 唐慎微; 證類備用本草, 華夏出版社 1993年
5. 李時珍; 本草綱目, 人民衛生出版社 1982年
6. 陳嘉謨; 本草蒙筌, 人民衛生出版社 1988年
7. 李梴; 醫學入門, 大星文化社 1994年
8. 許浚; 東醫寶鑑, 南山堂 1966年
9. 劉文泰; 本草品彙精要, 人民衛生出版社 1982年
10. 嚴西亭 施澹寧 洪緝菴; 得配本草,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年
11. 樂茂; 滇南本草, 雲南省新華書局 1977年
12. 繆希雍; 神農本草經疏, 中國醫學大系, 圖書出版鼎談 1993年
13. 汪詡庵; 本草備要, 高文社 1974年
14. 吳儀洛; 增主 本草從新, 文光圖書有限公司, 1984年
15. 楊時泰; 本草述鈞元, 科技衛生出版社, 1982年
16. 張璐; 本經逢源, 上海錦章書局, 1695年
17. 沈金鰲; 中醫要藥分類, 自由出版社, 1985年
18. 汪詡庵; 本草易讀, 人民衛生出版公司, 1987年
19. 《中藥臨床應用》編寫組編; 中藥臨床應用, 中山醫學院, 1975年
20. 中國醫學科學院藥物研究所 等編; 中藥志(第四冊), 中國科學院藥用植物資源開發研究所, 1961年
21. 謝先; 草木便方, 責任編輯, 1988年
22. 顏正華 主編; 中藥學, 1991年
23. 上海中醫學院編; 中草藥學, 1975年
24. 主編: 冉先德; 中華藥海, 1993年
25. 申吉求; 申氏本草學, 1987年
26. 中藥大辭典 新文豐出版公司 1982年
27. 本草學教室; 本草學 永林社, 1991年
28. 박영철; “豨薺수침이 자발성 고혈압 흰쥐의 혈압 및 혈청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年
29. 김광호, 장동순; “豨薺이 실험적 고지혈증의 예방 및 치료효과에 미치는 영향.” 경희한의대논문집, 1994年
30. 이우철; 한국식물명고, 아카데미서적, 1996年